

合成名詞 指導를 위한 教材 構案의 原理

최 영 환 (서울대 강사)

< 목 차 >

- | | |
|-------------------|----------------------|
| 1. 教材 構案의 基本 原理 | 2. 合成名詞 指導를 위한 教材 構案 |
| 1.1. 文法 指導를 위한 教材 | 2.1. 概念과 構造에 대한 指導 |
| 1.2. 教材 構案의 基本 方式 | 2.2. 合成名詞 生成에 대한 指導 |

1. 教材 構案의 基本 原理

1.1. 文法 指導를 위한 教材

언어교육에서 문법 지도는 중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며, 동시에 생산적인 언어사용을 가능하게 해 주는 기반이 된다. 문법 지도를 위한 교재를 구안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문법 지도의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교재 구안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언어에 대한 인지적 지식을 가르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어 형식을 중시하는 구조적 교재(structural syllabus)가 되고, 문법 지식을 활용하여 의사 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어사용의 맥락에 따른 의미를 중시하는 기능적 교재(functional syllabus)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과 담화에서의 의미를 중시하게 되면 관계적 교재(relational syllabus)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문법 지도 전반에 대하여 구별 없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법 지도는 언어의 제 측면을 다루는 것이므로 가르치고

자 하는 것에 따라 문법 지도를 위한 교재 구안의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

사실 문법이라는 것은 의사 소통 능력의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소통 능력의 일부가 된다. 의사 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은 문법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담화적 능력, 전략적 능력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문법적 능력은 의사 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것이다. 문법 지도에 대하여 논할 때에 의사 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문법 지도가 담화와 관련을 맺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담화 능력은 의사 소통 능력이고 문법적 능력은 의사 소통 능력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다.

이러한 논의의 대부분은 문장 문법 이상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문법 지도를 위한 교재 구안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쳐 온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논의에 대하여 Widdowson(1979)은 문장을 산출하는 능력은 언어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능력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어를 안다고 하는 것은 문장을 이해하고, 말하고, 읽고 쓰는 방식을 안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는 어떤 언어에 대하여 안다는 것은 문장이 의사소통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을 아는 것이라고 하면서 문법이 의사 소통 능력의 지식 기반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의사 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문법을 지도해야 한다는 주장은 담화와의 관련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나타난 것이다. 과거의 문법 지도에서는 문법 지도의 내용이 언어학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인지적 지식의 영역에 머물러 의사 소통 능력의 신장에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을 제공하는 문법 지도를 지양하고 의사 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문법을 지도하기 위하여 담화 분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담화 분석적으로 접근한 문법은 의사 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의사 소통 능력이 문법 지도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문법 지도는 의사 소통 능력의 일부이다. 이점에 대하여 주경희(1992)는 '담화 분석을 통해 연구된 이론에 근거를 둔 교재 설정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문법은 지식 기반으로서만 아니라 그것이 의사 소통

능력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문법은 지식 기반이 아니라 의사 소통 능력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문법이 의사 소통 능력이 되는가 여부는 문법 지도의 내용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방식으로 문법 지도를 하는가에 따라 의사 소통 능력이 되기도 하고 지식 그 자체에 머물기도 한다는 것이다. 담화에서의 사용을 보여줌으로써 문법이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의사 소통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점은 종래 문법 지도에 대한 비판과 맥을 같이 한다. 종래의 문법 지도는 언어학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결과로서의 지식을 가르친 것이었으므로 그것이 의사 소통 능력과 무관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로서의 지식은 언어 학습자에게 규범으로 활용되지도 못하고, 생산적으로 활용되지도 못했다. 그것은 의사 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문법적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지식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문법 지도는 국어의 규범이나 국어를 분석한 결과로서의 규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국어 분석의 과정과 결과로 나온 규칙을 통하여 국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언어 생활을 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의 문법 지도에서 선택하는 방식이 담화 분석적 접근이다. 그러나 담화 분석적 접근이 문법 지도의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법 지도는 언어의 제 영역을 모두 포괄하게 되는데, 음운의 영역을 지도할 때에도 담화 분석적 접근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형태의 영역을 지도할 때에도 그렇다. 담화 분석적 접근이 가능한 것은 적어도 문장 이상의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도 담화 분석적 접근이 항상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의 특성에 따라 어떤 접근 방식을 사용할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

합성어 형성 규칙에 대한 지도는 규칙 학습을 통하여 합성어를 이해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문법 지도의 기본적인 원리를 따라야 한다. 종래 어휘 지도에 대한 연구는 교육용 어휘 선정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었지만, 어휘 형성 규칙을 지도함으로써 국어의 어휘 체계를 이해하고 새로운 어휘소를 생성하여 어휘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합성어의 내적 구조를 이용하는 것은 어휘 지도를 위한 유용한 조직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즉 합성어의 형태, 의미 구조에 대한 학습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규칙을 학습함으로써 새롭게 접하게 되는 수많은 합성어의 의미를 이해하며, 새로운 어휘소를 생성하는데 유용하다.

1.2. 教材 構案의 基本 方式

문법 지도를 위한 교재를 구안하는 방식은 가르치고자 하는 영역과 내용에 따라 다르다. 합성 명사를 지도하기 위하여 교재를 구안할 때에는 합성 명사의 여러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재 구안의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합성 명사 지도를 위한 교재 구안은 합성 명사의 형태와 의미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합성 명사의 형성 규칙은 기본적으로 형태면에서 기술하기가 용이할 뿐 아니라, 이해도 쉽기 때문에 형태의 측면을 중심으로 교재를 구안하는 것이 첫번째 단계가 된다. 이와 함께 합성 명사의 의미에 대한 지도도 병행되어야 한다. 합성 명사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합성 명사를 구성하는 성분들의 의미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데, 그 의미의 특수화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교재 구안자나 교사들에 의해 적절하게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합성 명사 지도를 위한 교재 구안은 합성 명사 형성의 규칙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합성 명사의 형성 양상은 단순히 국어의 합성 명사를 구조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제시 방식으로는 합성 명사에 대한 인지적 지식의 차원에서 언어수행적 지식의 차원으로 전환하도록 할 수가 없다. 합성 명사의 형성 규칙은 국어의 합성 명사를 분석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어의 합성 명사를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생산적인 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합성 명사의 형성 규칙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부적인 규칙을 가르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규칙은 언어학습자에게 지식 습득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실제 언어 생활에서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성 명사의 형성 규칙은 가능한 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합성 명사에 대한 연구 결과의 정밀화와는 다른 것이다. 합성 명사에 대한 연구 결과는 가능한 한 정밀해야 하고, 합성 명사의 모든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지만, 합성 명사에 대한 학습을 하는 학습자에게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재 구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학생이므로 규칙은 단순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문법 지도 전반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문법 지도를 위한 교재 구안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의 수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만, 문법 지도에 관여하는 교사나 교재 구안자들을 위한 규칙은 정밀해야 한다. 그들은 정밀한 규칙을 토대로 하여 학습자에게 필요한 규칙으로 단순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셋째, 합성 명사 지도를 위한 교재 구안은 학습자의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법 지도에서 학습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문법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를 고려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이점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거의 없으며, 문법 지도를 논하는 모든 영역에서 학습자의 필요는 반드시 전제된다. 그러나 실제로 합성 명사를 지도하기 위하여 교재를 구안할 때에는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학습자의 필요에 대한 고려는 학습자의 언어 생활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기보다는 가르치고자 하는 문법의 전문성이나 학습 곤란도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학습자의 필요는 학습자의 학습 곤란도로 오해하고 있다.

이점은 교재 구안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에 기인한다. 교재 구안을 할 때 직선형 교재(linear syllabus)로 할 것인가 나선형 교재(spiral syllabus)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에서 나선형 교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언어를 지도하는 과정은 직선형으로 이루어지지만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은 나선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법 지도의 교재는 언어 학습의 과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나선형으로 구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가르치고자 하는 문법의 전문성이나 학습의 곤란도에 근거한 나선형이어선 안된다. 학습자의 필요에 따른 나선형이어야 하는 것이다.

넷째, 교재 구안은 결과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의 도출 과정을 보이는 것이어야 한다. 합성 명사 지도를 위한 교재를 구안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식을 제시할 것인가이다. 문법 지도가 규범이나 결과로서의 규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면, 문법 지도를 위한 교재를 구안할 때 단순한 결과적 지식을 제시해서는 안된다. 결과적 지식은 언어 사용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법 지도는 국어의 분석 과정을 이해하고 그 결과로 나온 규칙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국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과의 도출 과정으로서의 지식을 제시해야 한다. 언어 학습자들이 규칙을 도출하는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실제 언어 사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문법을 언어 학습자가 이미 알고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관련시키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J.P.B. Allen(1974)의 주장과 같이 문법을 학습하는 것이 언어 학습자가 이미 학습한 자료를 의식적으로 통찰할 수 있도록 하고, 언어 현상의 움직임을 예측하게 하며, 그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방대한 양의 자료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규칙의 도출 과정을 가르치는 문법 지도를 지향하여야 한다.

다섯째, 합성 명사의 형성 규칙이 생산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법 지도의 목표가 인지적 지식을 가르치는 데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인지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창조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합성 명사의 형성 규칙은 단순히 지식으로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합성 명사를 지도한다는 것은 합성 명사의 형성 규칙을 분석적으로 이해하여 언어 사용의 맥락에서 합성 명사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지시 대상을 적절하게 지시할 수 있는 합성 명사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합성 명사의 형성 원리는 언어의 규칙 체계로서 다른 문법적인 규칙이나 발음의 규칙과 같은

방식으로 학습자에게 기술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문법 지도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 합성 명사의 형성 규칙은 학습자가 실험하고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합성 명사의 형성 규칙은 의사 소통 전략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어떤 맥락에서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 없거나 표현의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에 구나 절, 문장보다는 합성 명사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합성된 명사는 국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보다는 국어의 합성 명사 형성 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명사가 된다. 이것이 국어의 합성 명사로 등재되는가 여부와 관계 없이 합성된 명사는 사용된 맥락에서 다른 언어적 표현보다는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합성 명사의 형성 원리는 의사 소통의 전략으로서 유용하다.

2. 合成名詞 指導를 위한 教材 構案

합성 명사를 지도하기 위하여 교재를 구안할 때에는 합성 명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적절한 과정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합성 명사에 대한 연구 결과로서 제시되는 문법은 학습자에게 인지적인 지식이다. 인지적인 지식은 합성 명사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언어 수행적 지식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하다. 과거의 문법 지도에서는 인지적인 지식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문법 지도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이제 합성 명사의 지도는 인지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학습자 스스로 언어 사용 맥락에서 합성 명사에 대한 분석적 이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지적인 지식은 단순히 결과로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에게 다른 표현과의 비교와 대조,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합성 명사에 대한 지식이 언어 생활과 무관한 지식으로서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 국어에서 매우 생산적으로 사용되는 합성 명사에 대한 이해와 표현의 기초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생산적인 지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것은 합성 명사 지도를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합성 명사에 대한 이해에 제한하지 않고, 합성 명사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 합성 명사의 어휘화 과정에 대한 이해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실제 어휘화되지 않아도 언어 생활에서 자유롭게 합성 명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2.1. 概念과 構造에 대한 指導

합성 명사를 지도하기 위한 교재를 구안하는 방식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다섯 가지 원칙을 기초로 제시하기로 한다. 이것은 계층적 구조를 갖는 것이 아니며, 합성 명사 지도를 위한 교재를 구안하는 구체적인 방식일 뿐이다. 일단 이러한 구체적인 방식이 제시되고 나면, 이것을 기초로 하여 각 학교급별, 학년별로 가르쳐야 할 내용을 선정하고 그것을 조직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제, 합성 명사를 지도하기 위한 교재 구안의 구체적인 방식을 살펴 보자.

2.1.1. 概念과 範疇

합성 명사를 지도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합성 명사의 개념에 대한 이해이다. 이것은 합성 명사에 대한 모든 인지적 지식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단일어나 파생어와의 구별은 물론 句와의 구별을 가능하게 한다.

합성 명사의 개념을 학습한다고 할 때 단순히 명칭이나 지식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나 고등 정신 기능의 신장을 전제로 하는 것

이므로 합성 명사 지도에서 매우 중요하다. 합성 명사의 개념에 대한 학습은 단순히 연구결과로서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의 획득 과정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는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하위의 구체적이고 기초적인 개념이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학습자가 개념을 획득했을 때 합성 명사의 본질적인 특성에 비추어 범주를 설명할 수 있으며, 그들 앞에 제시된 예 중에서 합성 명사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스스로 개념에 맞는 새로운 예를 만들 수 있게 된다.

합성 명사의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합성 명사의 개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곤란도에 따라 가르칠 것을 배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합성 명사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2.1.1.1. 合成名詞의 概念

합성 명사는 하나의 어휘소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단일어와 같으므로 합성 명사의 개념 지도에서 이와 같은 점을 먼저 지도해야 한다.

- (1) ㄱ. 나뭇잎, 가죽신, 봄비, 옛사람
- ㄴ. 개돼지, 밤낮, 눈바람, 손발
- ㄷ. 작은집, 집안, 흰쥐, 큰곰

합성 명사는 그 구성 성분의 형태와 의미 구조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므로, 제시하는 순서를 고려해야 한다. (1 ㄱ)과 같은 예들은 합성 명사로서 단일어와 같이 하나의 어휘소로 기능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이러한 예를 제시하면서 합성 명사는 구성 성분의 의미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두 구성 성분이 결합하여서 하나의 의미로 사용되

는 것임을 확인하도록 한다. ‘나뭇잎, 가죽신, 봄비, 뭇사람’은 각각 ‘잎, 신, 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면서 그 의미를 특수화시키는 것이므로 하나의 어휘소를 형성하여 단일어처럼 기능하게 된다는 것을 국어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나)의 예는 (1 가)과 함께 지도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이것은 병렬 구조를 가진 복합어인데, 앞 장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하나의 어휘소로 기능하여 합성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두 구성 성분의 의미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되어 접속에 의한 명사구로 쓰이기도 하므로,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기능이 달라지는 것임을 보이도록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1 가)과는 달리 맥락에서 벗어나 있을 경우에는 합성 명사인 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1 다)은 합성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구로 쓰이기도 하는 것이다. 즉 합성 명사로 쓰일 경우에는 하나의 어휘소로서 단일한 의미를 갖게 되지만 구로 쓰일 경우에는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이것은 합성 명사와 구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므로 주의하여 지도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합성 명사는 그 특성에 따라 위와 같이 셋으로 나누고, 그 지도 순서도 순차적으로 배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합성 명사의 개념은 단일어 및 파생어와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지도한다. 단일어와 파생어 및 합성어의 개념은 그 차이점만을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지양하고 공통점에 관한 정보도 제시해야 한다. 단일어와 파생어 및 합성어는 모두 단일한 어휘소로 기능하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표현 방식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파생어와 합성어를 복합어로 분류하는 까닭은 이들이 모두 둘 이상의 어휘소가 결합되어 새로운 어휘소를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생어와 합성어는 모두 새로운 어휘소를 만든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을 알도록 하는 것이 합성 명사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다.

(2) 가. 덮개, 덧버선, 들개, 맨손

나. 물개, 감발, 날짐승, 부슬비

(2ㄱ - ㄴ)의 예들은 둘 이상의 어휘소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2ㄱ)은 어근과 접사, (2ㄴ)은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어근이나 접사가 모두 어휘소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어근이나 접사가 결합됨으로써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파생과 합성은 구성 성분의 차이일 뿐, 결과적으로는 단일어와 구별할 때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합성 명사의 개념 지도에서 합성 명사를 구성하는 성분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휘소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고, 그것들 중에서 합성과 파생에 사용되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성 명사의 개념을 단일어 및 파생어와 대조하여 설명할 때에는 그 구조적 차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단일어의 구성 성분과 파생어의 구성 성분 및 합성어의 구성 성분의 차이가 잘 드러나도록 하여 각각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단일어와 복합어는 구성 성분의 수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지만, 파생어와 합성어는 구성 성분의 수가 아니라 구성 성분의 종류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다. 따라서 파생어와 합성어를 대조하여 설명할 때에는 어휘소 중에서 파생어를 형성하는 것과 합성어를 형성하는 것의 차이를 보여 주어야 한다.

2.1.1.2. 合成名詞의 範疇

합성 명사와 명사구의 구별은 합성 명사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항상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합성 명사와 명사구의 구별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실제 언어 생활에서 합성 명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합성 명사와 명사구 및 문장의 비교를 통하여 합성 명사의 효용성을 알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합성 명사는 명사구나 문장에 비하여 최소의

언어 표현으로 지시 대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명사구와 합성 명사의 구별은 실제 언어생활에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문제이다.

- (3) 가. 오늘은 작은집에 가야 해.
 나. 저기 보이는 작은 집이 우리집이야.
- (4) 가. 손발 씻고 자라.
 나. 손발이 맞는다.

합성 명사와 구의 구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용언의 관형형과 명사의 합성, 병렬 구조에 의한 명사와 명사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3 가 - 나)와 (4 가 -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성 명사와 구의 구별은 맥락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종속 구조에 의한 합성 명사는 일반적으로 구로 인식하지 않으나 병렬 구조에 의한 합성 명사, 관형형과 명사의 합성에 의한 합성 명사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예를 보고 구별이 가능하다. 그러나 항상 맥락을 통해서만 구별하도록 할 수는 없다. 합성 명사 중 언중에 의해 용인된 것은 이미 사전에 등재되어 단어처럼 인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성 명사와 구의 형태상, 의미상의 차이를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익히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 명사와 명사구의 구별은 합성 명사의 음운론적 특성, 형태론적 특성과 의미론적 특성으로 나누어 기술해야 한다. 국어학의 연구 결과로 볼 때 이들의 구별 기준이 세분되고 정밀하게 기술될 수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목표가 아닌 문법 지도에서는 정밀하게 세분된 지식은 오히려 학습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언어 생활에서의 적용에도 부담이 될 뿐이다.

합성 명사는 형식적인 특징은 음운론적으로 개방연접의 개입 불가, 형태론적으로 구성 성분의 비분리성으로 나누어 기술하여야 한다. 개방연접의 개입 불가는 실제 명사구와의 대조를 통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어 화자의 경우 개방연접의 개입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므로 실제 적용에서도 무리가 없다.

- (5) ㄱ. 큰곰 ㄴ. 큰 곰
- (6) ㄱ. 흰쥐 ㄴ. 흰 쥐
- (7) ㄱ. 비바람 ㄴ. 비 바람
- (8) ㄱ. 밤낮 ㄴ. 밤 낮

(5) - (8)의 ㄱ.은 합성 명사로서 개방연접이 개입되지 않는 것인데 비해, (5) - (8)의 ㄴ.은 명사구로서 개방연접이 개입된 것이다.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화자들은 이러한 예들의 개방연접 개입 유무를 거의 자동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합성 명사와 구를 구별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으로 지도할 수 있다.

형태론적 특성인 구성 성분의 비분리성은 구성 성분의 도치 가능성, 구성 성분의 내적 확장 가능성, 외적 분포류의 제약 등으로 나누어 기술할 수 있다.

- (9) ㄱ. 논밭, 안팎
- ㄴ. 안마당, 집안
- ㄷ. 산사람, 나뭇배

합성 명사 중에서 구성 성분의 배열 순서를 바꾸어 볼 수 있는 것은 명사와 명사가 합성된 것뿐이다. 용언의 관형형이나 용언의 어간, 부사나 감탄사와 같은 것과 명사의 합성은 구성 성분의 배열 순서를 바꿀 경우에 명사구로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명사와 명사가 합성된 합성 명사 중에서도 (9 ㄱ)의 예들은 합성 명사로 기능하면서 구성 성분의 배열 순서를 바꿀 경우에는 명사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9 ㄱ)의 '논밭'은 '밭논'으로 바꿀 경우 합성 명사가 될 수 없지만, '밭과 논'을 의미하는 구로, '안팎'은 구성 성분의 배열 순서를 바꿀 경우에 '밖과 안'이라는 의미의 구로 사용된다. 따라서 합성 명사의 구성 성분은 의미의 변화없이 순서를 바꿀 수 없다. (9 ㄴ)도 (9 ㄱ)과 마찬가지로

구성 성분의 배열 순서를 바꿀 경우에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이다. '마당 안'은 '마당의 안쪽'이라는 의미로, '안집'은 '주인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역시 의미의 변화 없이 구성 성분의 배열 순서를 바꿀 수 없다. (9 ㄷ)은 구성 성분의 배열 순서를 바꿀 수도 없는 예들이다.

그러나 구성 성분의 배열 순서를 바꿀 수 없는 것은 합성 명사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앞 장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句나 문장에서도 구성 성분의 배열 순서를 바꿀 수 없는 예가 있다. 따라서 구성 성분의 배열 순서를 바꿀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합성 명사와 명사구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합성 명사 중에서 병렬 구조로 합성된 것에 제한하여야 한다.

- (10) ㄱ. 작은집
 ㄴ. 작은 집
- (11) ㄱ. 들것
 ㄴ. 들 것
- (12) ㄱ. 손위
 ㄴ. 손 위

(10) - (12)의 ㄱ.은 합성 명사로 구성 성분 사이에 다른 성분을 개입시킬 수가 없다. (10 ㄱ)의 '작은집'은 '작은 아이의 집'이라고 내적 확장을 하게 되면 '작은 아들의 집'이 된다. 그것은 본래의 의미인 '작은아버지의 집'과는 다른 의미가 되므로 합성 명사는 내적 확장이 불가능하다. 반면에 (10 ㄴ)은 내적 확장이 이루어져도 본래의 의미는 변하지 않고 의미가 첨가될 뿐이다. (11 ㄱ)의 경우도 '들'과 '것' 사이에 다른 성분이 개입될 수 없으나 (11 ㄴ)은 개입이 가능하다. (11 ㄴ)은 '들만한 것' '들어서 옮길만한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12 ㄱ)의 예도 합성 명사로 사용될 때에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항렬이 높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다른 구성 성분이 개입될 수 없지만, (12 ㄴ)의 경우에는 '손 바로 위'와 같은 내적 확장이 가능하다. 이것은 합성 명사와 구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13) ㄱ. 무거운 들것 - *무거운 들 것

ㄴ. *매우 작은집 - 매우 작은 집

(13 ㄱ)에서 합성 명사 ‘들것’은 ‘들’이 분리되지 않으므로 ‘무거운’으로 ‘들’을 수식할 수 없다. (13 ㄴ)에서도 합성 명사 ‘작은집’에서 ‘작은’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매우’에 의해 수식을 받지 못한다. 반면에 명사구인 ‘작은 집’에서 ‘작은’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매우’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적 분포류의 제약은 합성 명사와 구를 구별하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은 국어학에서는 구별 기준으로 세분되어 있으나, 결국은 구성 성분의 비분리성으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이고, 비분리성이 나타나는 양상일 뿐이다. 따라서 비분리성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각각 예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의 예시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합성 명사와 명사구를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적용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예를 보여주는 것에 그쳐야 한다. 이는 구별 기준의 단순화를 통하여 지도의 효율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이다.

합성 명사의 의미론적 특성을 중심으로 명사구와 구별하도록 지도할 때에는 의미의 특수화가 기준이 된다. 기본적으로 합성 명사는 사전에 등재되는 반면 명사구는 사전에 등재되지 않는다. 이것은 구성 성분으로부터의 의미 예측 가능성 때문이다. 합성 명사와 명사구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

(14) ㄱ. 흰쥐 - 흰 쥐

ㄴ. 파랑새 - 파랑 새

ㄷ. 작은집 - 작은 집

ㄹ. 붉비 - 붉 비

(14 ㄱ)의 ‘흰쥐’는 단순히 색깔이 흰 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실험용으로 사육되는 쥐의 일종을 말하는 것이며, (14 ㄴ)의 ‘파랑새’는 색

깎이 파란 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랑새과의 새를 지칭하는 것이다. (14 ㄷ)의 '작은집'도 단순히 크기가 작은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아버지의 집'을 의미하며, (14 ㄹ)의 '봄비'도 '봄에 내리는 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예와 명사구로서의 '흰 쥐, 파랑 새, 작은 집, 봄 비'는 그 의미의 특수화에서 차이가 난다. 이것은 합성 명사와 명사구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합성 명사와 명사구를 구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문법 교재에서 이러한 예들을 통하여 합성 명사와 명사구의 차이를 인식하도록 하고, 이러한 기준을 실제 언어 사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합성 명사는 사전에 등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휘화의 정도에 따라서 사전에 등재되기도 하고, 등재되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합성 명사의 의미는 사전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합성 명사의 의미는 어휘화 정도에 따라서 사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언어생활에서는 맥락에 따라서 의미 파악이 가능한 것도 많다. 그러므로 합성 명사의 의미 파악은 사전을 통한 것과 맥락을 통한 것으로 나누어져야 한다. 전자는 국어에 이미 존재하는 합성 명사이지만, 후자는 새로 합성되어 아직 어휘화되지 않은 것들이다. 그러나 합성 명사는 실제로 용인되지 않은 것이라도 언어 생활에서 매우 생산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기존의 합성 명사를 가르치는 것을 지양하고 새로운 합성 명사의 이해와 생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1.2. 形態과 意味 構造

합성 명사의 지도는 형태에서 의미로 나아가야 한다. 합성 명사의 형태 구조는 몇 가지로 단순화시켜서 기술하여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나, 의미 구조는 매우 복잡하며, 의미 구조로부터 만들어지는 합성 명사의 의미 역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지도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합성 명사의 지도에서 형태의 측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합성

명사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지도되어야 한다. 특히 합성 명사는 새로운 어휘소를 만드는 과정의 결과이므로 의미 지도는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합성 명사의 형태 구조와 의미 구조에 대한 지도는 합성 명사에 대한 연구 결과를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합성 명사를 제시하고, 그것을 유목화, 범주화하여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합성 명사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 합성 명사의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하게 한 후에, 여러 가지 합성 명사를 그 구조적 특징에 따라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합성 명사의 구조에 대하여 이해시킬 수 있으며, 그것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합성 명사를 이해하고, 생성하도록 할 수 있다.

2.1.2.1. 合成名詞의 形態 構造

합성 명사의 형태 구조에 대한 지도는 합성 명사를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합성 명사를 생성하는 데 중요하다. 합성 명사의 형태 구조는 이미 앞 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직접구성성분 분석에 의한 품사별 분류가 가장 적절한 것이다.

- (15) 가. 새나라, 들것, 불일
 나. 논밭, 개돼지, 봄가을, 손발
 다. 콧물, 나뭇잎
 라. 늦잠, 검버섯
 마. 옷걸이, 뽕튀기, 집짓기, 책상물림

합성 명사의 형태 구조는 (15 가 - 마)과 같은 예들의 직접성분분석을 통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15 가 - 나)은 쉽게 직접성분분석을 할 수 있어서 합성 명사를 구성하는 성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를 먼저 지도

하여 직접성분분석을 한 후에, (15 ㄷ)과 같이 명사와 명사의 합성에서 사이시옷이 개입된 것들의 직접성분분석으로 나아갈 수 있다. (15 ㄷ)은 직접성분분석을 할 때 혼란을 일으키는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즉 사이시옷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이 직접성분분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15 ㄱ - ㄴ)과는 달리 지도해야 한다. (15 ㄹ)의 경우는 직접성분분석을 할 때 더욱 주의를 요한다. 이것은 비자립의 어근과 명사가 결합된 것으로서 국어에서 그 예가 적을 뿐 아니라 현대에서도 생산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지만, 합성 방식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의 지도는 그 난도를 고려하여 다른 것에 비해 뒤에 지도해야 하지만, 지도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15 ㅁ)은 직접성분분석에서 혼란을 일으키기 쉽다. 이와 같은 합성 명사의 구성 성분을 분석할 때 뒤에 오는 구성 성분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진다. 이것은 합성이 먼저 일어나서 합성 어근을 형성하고, 그 뒤에 최종적으로 접사가 결합된 파생어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은 합성어를 이해하고, 이러한 예들의 의미 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설명하고, 명사 합성에서 사이시옷이 개입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16) ㄱ. 종이배, 나무집, 새소리

ㄴ. 길손, 손가락, 가을비

ㄷ. 간밤, 들것, 날짐승

ㄹ. 늦잠, 검버섯, 묵발

ㅁ. 부슬비, 헐떡고개, 뽕죽탕

ㅂ. 새달, 새집, 요새

ㅅ. 싸구려 장수, 아차상

ㅇ. 다섯모, 아홉수, 다섯콩

ㅈ. 우리말

(16 ㄱ - ㅈ)의 예는 선행 구성 성분은 조사를 제외한 여덟 가지 품사가 모두 사용되는 것을 보여 준다. 명사를 합성할 때 선행 구성 성분의 품사에

는 제한이 없으므로, 합성 명사를 지도할 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어의 합성 명사 중에서 그 용례가 적다고 해도 품사상의 제약이 없으므로 이들을 모두 지도함으로써 합성 명사의 생성에서도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다.

합성 명사의 구성 성분에 따른 분류는 결과적 지식으로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의 합성 명사 중에서 구성 성분의 품사를 고루 반영하는 예를 제시하고 직접구성성분 분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석한 예들의 선행 구성 성분에 따라서 분류하게 하면 합성 명사를 형성하는 구성 성분의 품사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실제 활용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품사별 분류는 합성 명사 형성에서의 빈도와 생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 국어의 합성 명사는 명사와 명사 합성이 가장 생산적인 반면에 감탄사나 부사 등과 명사의 합성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것과는 지도의 중요성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품사에 따른 명사 합성에 제약이 없으므로 이들 모두를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용언의 활용형과 명사의 합성, 용언의 어간과 명사의 합성, 파생어와 명사의 합성 및 합성어의 파생 등도 그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들 중에서 용언의 어간과 명사의 합성은 생산성이 비교적 적지만 현대 국어에서도 계속 합성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므로 그 합성 명사 지도에서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17) ㄱ. 냇가, 바닷물, 깻잎

ㄴ. 바람소리, 봄비, 손거울

ㄷ. 갈림길, 비빔밥, 구김살, 울림소리

(18) ㄱ. 종이배, 나무젓시, 쇠뿔등이, 보리밥

ㄴ. 개집, 새집, 호랑이굴, 새소리

명사와 명사의 합성은 합성 명사 지도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중요한 문제이다. 명사와 명사 합성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합성 명사에 사이시옷을 표기할 것인가, 사이시옷을 발음할 것인가이다. 명사와 명사 합성은 단

순히 선행 구성 성분의 품사만으로는 사이시옷의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선행 구성 성분의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사이시옷의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의 어문 규정에서도 혼란이 있으므로 적절히 지도함으로써 명사 합성에서의 혼란을 막도록 해야 한다.

(17 ㄱ - ㄷ)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어에서 명사와 명사의 합성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이시옷이 개입되는 것으로 지도한다. 명사와 명사의 합성에서 사이시옷이 개입되는 까닭은 두 구성 성분 사이에 + 경계를 갖도록 하여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사이시옷이 개입됨으로써 선행 구성 성분과 후행 구성 성분이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어휘소로 기능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명사와 명사의 합성된 것 모두에 사이시옷이 개입되는 것은 아니다. (18 ㄱ - 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이시옷이 개입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18 ㄱ)의 예는 선행 구성 성분이 후행 구성 성분의 재료가 되는 것이며, (18 ㄴ)은 선행 구성 성분이 후행 구성 성분의 소유주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를 통하여 국어 합성 명사에서 사이시옷이 개입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경우를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설명해야 한다. 사이시옷이 개입되지 않는 것은 (18 ㄱ)의 예와 같이 선행 구성 성분이 후행 구성 성분의 재료나 모양, 크기나 색깔 등 명사의 일차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인 경우이다. 이것은 문장에서도 아무런 제약없이 구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으로서 명사구로 자주 사용되는 것이 하나의 합성 명사로 인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8 ㄴ)의 예는 선행 구성 성분이 소유주가 되는 것으로서 (18 ㄱ)과 마찬가지로 명사구의 형태로 문장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명사구 형태로 자주 사용되는 것이 하나의 합성 명사로 인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류의 합성 명사가 반드시 명사구로 먼저 존재하면서 자주 사용하게 되어 합성 명사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후행 명사의 특성을 관형사적 기능을 하는 명사로 나타내거나 소유주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지는 합성 명사에도 사이시옷은 개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제한 조건을 전제로 명사와 명사의 합성에서는 사이시옷이 개입

되는 것으로 지도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2.1.2.2. 合成名詞의 意味 構造

합성 명사의 의미 구조에 대한 지도는 합성 명사의 의미와 의미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합성 명사의 의미 구조는 합성 명사를 구성하는 성분 사이의 의미 관계인데, 이것은 합성 명사의 의미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종래 합성 명사의 지도에서 구성 성분 사이의 의미 관계보다는 합성의 결과로 나타내게 된 의미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지도 대상이 된 하나의 합성 명사의 의미를 학습하는 이외에 다른 합성 명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새로운 합성 명사를 생성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합성 명사의 의미 구조는 합성하는 방식에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분류가 불가능하다. 일부 학자들이 합성 명사의 의미 구조를 분류하고자 하였지만, 이것이 국어의 합성 명사의 의미 구조를 모두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 기술이 교육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합성 명사의 구성 성분 사이의 의미 관계를 분류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합성에 제약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가

-
- 1) P.Downing(1977)에 의하면, 합성 명사를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이론적 모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① 명사 + 명사 합성어는 어휘화된 합성어가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생산적인 과정이다.
 - ② 합성어는 단언이나 기술이 아니라 명명이라는 점에서 통사적 구조와는 다르다.
 - ③ 가능한 합성 관계의 수는 한정되지 않는다.
 - ④ 가능한 합성 관계의 종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 변한다.

얼마든지 새로운 방식으로 합성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가능한 합성이 무제한에 가깝다는 것은 합성의 임의성을 설명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합성은 새로운 어휘소를 만드는 과정이고, 새로운 어휘소는 결국 명명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²⁾

(19) ㄱ. 손가락, 작은형, 늦잠, 부슬비

ㄴ. 밤낮, 눈발, 손발, 눈코

ㄷ. 보릿고개, 노루종아리, 구리귀신, 까치눈, 손위

합성 명사의 의미 지도는 구성 성분의 의미로부터 합성 명사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19 ㄱ)은 일반적으로 종속 구조로 이루어진 합성 명사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예는 합성 명사의 의미 구조와 합성 명사의 의미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서 의미 구조로부터 의미를 예측할 수가 있다.

그러나 (19 ㄴ)은 병렬 구조로 이루어진 합성 명사인데,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병렬 구조가 합성 명사의 의미의 병렬, 즉 접속에 의하여 각각의 구성 성분이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므로 그 의미는 특수하게 변한다. 따라서 (19 ㄱ)과는 달리 합성 명사의 의미 구조로부터 합성 명사의 의미를 쉽게 예측할 수가 없으므로 (19 ㄱ)의 예를 통해 충분히 합성 명사의

2) Li(1971)는 명사와 명사의 합성은 (1) 기존 명사의 지시물을 하위 범주화하는 기능 bowl → sugar bowl, rice bowl, (2) 명칭을 부여하는 기능 Liberty Bell, Hoover Dam, (3) 전보식 문체로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 cradle song → a song to lull a child in the cradle to sleep 등의 세 가지 기능을 한다고 하였고, 박경현(1985)은 (1) 새로 등장한 사물이나 개념을 명명하려 할 경우, (2) 종래부터 있던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던 어(語)의 표현력이 감소되어 참신화, 완곡화한 표현을 하려 할 경우, (3) 언어 정책상 한자어를 고유어화하려 할 경우, (4) 최다의 정보량을 최소의 언어 구조 속에 뭉뚱그려 넣어 언어의 경제성을 꾀하려 할 경우에 합성 명사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어느 것이든지 결국은 명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어휘소라는 것 자체가 이미 새로운 지시대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미 구조와 의미를 이해한 후에 지도해야 한다. (19 ㄴ)의 합성 명사는 (19 ㄱ)에 비해 구성 성분의 의미로부터의 의미 도출 가능성이 줄어들지만 이런 합성 명사의 의미도 역시 구성 성분의 의미로부터 예측할 수 있다. 다만 그 의미의 예측이 (19 ㄱ)의 것보다 어려울 뿐이다. 그러나 합성 명사 지도에서 이것들을 지도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것은 아니므로, 단계를 설정하여 지도할 수 있다.

(19 ㄷ)은 합성 명사를 구성하는 성분으로부터 합성 명사의 의미를 예측할 수가 없다. ‘보릿고개’는 국어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구리귀신’ 역시 구성 성분 이외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합성 명사는 가장 나중에 지도해야 한다. ‘노루종아리’나 ‘까치눈’과 같은 것들도 모양의 비유에 의한 합성 명사이므로 구성 성분으로부터 합성 명사의 의미를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것들은 합성 명사를 지도하는 데 가장 나중에 고려되어야 할 예들이다. 그리고 이것의 지도에는 사전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합성 명사는 명사를 하위 분류하는 것이든,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든 관계 없이 새로운 어휘소로 합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 사용자들이 선택하는 의미 구조에는 제한이 없다. 모양이나 위치, 목적이나 용도 등 어느 것이든 선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의 다양성을 보이는 것이 합성 명사 지도에서 매우 중요하다.

- (20) ㄱ. 재료 : 나무집, 금반지
 ㄴ. 모양 : 흰쥐, 검버섯
 ㄷ. 모양 : 개다리소반,
 ㄹ. 크기 : 작은형, 큰곰
 ㅁ. 용도 : 땔나무, 물바가지
 ㅂ. 시간 : 봄비, 저녁밥
 ㅅ. 장소 : 강바람, 바닷가

(20 ㄱ - ㅅ)의 예들은 합성 명사의 의미 구조에 대한 지도를 할 때 의

미 구조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³⁾ 이러한 예들은 학습자들이 구성 성분의 의미 관계를 확인하고,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다른 용례를 제시하여 의미 관계에 아무런 제약이 없음을 인식하도록 하여 합성 명사를 생성할 때 적절한 의미 구조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합성 명사의 의미 구조에 대한 지도는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르게 구성되어야 한다. 합성 명사의 의미 구조는 몇 가지로 단순화시킬 수도 있고 세분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분류를 선택하여야 한다. 어떤 분류도 의미 구조의 다양성을 완벽하게 기술할 수는 없으므로 기존의 의미 구조에 대한 분류는 예시하는 것이어야 하고, 합성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로 지도되어야 한다.

2.2. 合成名詞 生成에 대한 指導

합성 명사의 개념과 범주 및 구조에 대한 지도는 기존의 합성 명사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지시 대상을 명명할 때,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를 고유어로 대체할 때, 전문 용어를 번역할 때 합성 명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합성 명사는 어휘화되지 않더라도 맥락에 따라 의미 해석에 어려움이 없이 사용되기도 하므로, 합성 명사의 생성은 생산적으로 의사 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된다.

3) 합성 명사의 의미 구조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정동환(1991)의 예를 원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어 합성 명사의 분류 체계가 아니라, 의미 구조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2.2.1. 合成名詞의 生成 過程

합성 명사의 생성 과정에 대한 이해는 합성 명사를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기반이 된다. 합성 명사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된 바 없다. 합성 명사의 생성 과정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합성 명사가 지시하고 있는 대상을 다른 방식으로 합성한 명사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보이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 (21) ㄱ. 주머니칼 : 접어서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특성
 ㄴ. 손칼 : 늘상 손에 두고 쓰는 특성
 ㄷ. 작은칼 : 자그마하다는 특성
 ㄹ. 접칼 : 칼집에 꽂는 것이 아니라 칼몸에 접어서 손잡이이자 칼 집인데다가 그 날이 끼이게 하여 가지고 다니는 특성

위의 예는 국어 합성 명사 ‘주머니칼’이 다른 방식으로도 합성되어 명명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합성 명사를 형성하기 위하여 선택되는 특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합성하는 사람이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용인되면 합성 명사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1 ㄴ - ㄹ) 중 어느 것도 (21 ㄱ)에 비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결국 합성 명사의 의미 구조는 지시 대상의 어떤 특성을 선택했는가에 따라 달라지며, 합성 명사의 형태 구조 역시 선택된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개방성이 합성 명사에 대한 지도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⁴⁾

- 4) 이와 유사한 것으로 박경현(1985)이 있다. 대학 강의실 비품 중의 하나인, 책상과 의자가 붙어 있는 실체를 명사와 명사가 합성된 형태로 명명한다고 했을 때 가능한 명명은 ‘의자책상, 대학책상, 책상의자, 책걸상, 걸책상’ 등이 가능하며, 이런 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문맥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석해 보아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것을 어휘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가령 ‘책상의자’인 경우에 다음 중 (ㄹ)이 선택되면 그것을 어휘화하는 것이다.

- (ㄱ) 책상과 의자

위와 같은 방식은 탈맥락적인 것이지만, 합성 명사는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해석되는 것이 많으므로 맥락의존적인 합성 명사에 대한 지도가 뒤따라야 한다.

- (22) 꽃집 : ㄱ. 꽃을 파는 집
 ㄴ. 꽃으로 만든 집
 ㄷ. 꽃을 만드는 집
 ㄹ. 꽃처럼 생긴 집
 ㅁ. 꽃이 많이 피어 있는 집

(22)의 꽃집은 이미 어휘화되어 (22 ㄱ)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맥락에 따라서는 (22 ㄴ - 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은 합성 명사의 맥락의존적인 속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며, 맥락에 따른 합성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합성 명사는 반드시 어휘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맥락에서 청자에 의해 해석이 가능하면 합성 명사의 사용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합성 자체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합성되는 명사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그 적절성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⁵⁾

- (23) ㄱ. 핵 명사의 의미 부류(The semantic class of the head noun)
 ㄴ. 관계의 예측가능성(The predictability of the relationship)
 ㄷ. 관계의 지속성(The permanence of the Relationship)

(23 ㄱ)은 합성 명사의 핵어(head noun)의 의미 부류와 수식하는 명사의 의미 부류의 관계에 의해 적절성이 제약을 받는 것이다.⁶⁾ (23 ㄴ)은 맥락에

-
- (ㄴ) 책상식으로 만든 의자
 (ㄷ) 책상과 의자를 접한 것
 (ㄹ) 책상과 의자가 함께 붙어 있는 것

5) P.Downing(1977), pp.828-836을 참조할 것.

서 예측이 가능한 합성은 합성 명사로 기능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합성 명사가 관계의 예측가능성을 어기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선행 명사가 지시하는 실체가 후행 명사가 지시하는 실체와 같을 경우, 둘째 합성 명사의 한 구성요소에 의해 지시된 실체가 다른 요소에 의해 지시된 것의 하위 범주일 경우, 셋째, 후행 명사에 의해 기호화된 실체가 합성 명사에 의해 기호화된 것과 같을 경우에는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명사로 합성될 수가 없다. (23 ㄷ)은 합성 명사가 우연적이거나 일시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형성되기 보다는 지속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형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연적, 일시적 관계에 의해 형성된 것은 합성 명사로 계속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합성 명사는 매우 생산적인 것이기 때문에 맥락에서는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맥락에 의해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의 세 가지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다고 해도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합성 명사의 지도에서는 탈맥락적인 합성 명사를 가르친 후에 맥락 의존적이면서 어휘화되지 않은 합성 명사를 지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합성 명사의 생산적 지도를 위하여 필수적인 과정이다.

2.2.2. 合成名詞의 語彙化 過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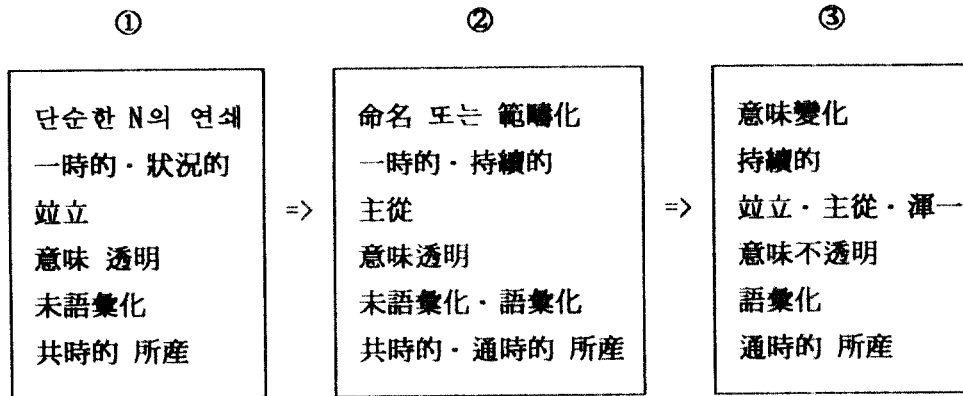
대부분의 합성 명사에 대한 연구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분석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아직 어휘화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합성 명사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다.

합성 명사를 지도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합성 명사에 대한 이해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언어 생활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합성 명사와 어휘화되지는 않지만 맥락에 의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합성 명사를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합성 명사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 6) 이것은 최현배(1975), 정동환(1991) 등에서 합성 명사를 분류한 예와 같은 것인데, 절대적인 분류는 아니다.

합성 명사 지도의 목표이다.

합성 명사의 지도는 어휘화된 것부터 시작해서 어휘화되고 있는 것, 합성 초기 단계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 좋다. 합성 명사의 어휘화 과정에 대하여 朴景賢은 다음과 같이 도시하였다.⁷⁾



합성 명사의 지도에서 어휘화 정도에 따른 배열은 ③ -> ② -> ①의 순서로 되어야 한다. 이미 어휘화된 합성 명사의 의미는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어 화자의 경우에는 그 의미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도에 어려움이 적다. 이러한 합성 명사를 이해한 후에는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합성 명사를 조사하고 그것을 분석하며, 그 의미를 예측하는 연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② 단계에 있는 합성 명사는 신문이나 방송, 국어순화를 위해 만들어진 명사, 학술 용어 등의 번역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휘화되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사용된 후에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합성 명사 지도를 위한 교재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러나 이 단계에 있는 합성 명사에 대한 지도는 합성 명사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과정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의 합성 명사가 교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실제 수업에서는 이러한 합성 명사를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7) 朴景賢(1990), p.165.

- (24) 구름다리 : ㄱ. 길이나 건물 따위의 위를 건너질러 지나가게 만든 다리
 ㄴ. 구름 속으로 보이는 다리
 ㄷ. 구름 낀 다리
 ㄹ. 구름 무늬를 새긴 다리
 ㅁ. 실제의 다리가 아닌 환상 속에 나타난 다리
- (25) 풍선예금 : ㄱ. 풍선 장수를 해서 번 돈으로 저축한 예금
 ㄴ. 풍선을 사기 위해 모은 돈을 예금하는 것
 ㄷ. 풍선처럼 불어나는 이율이 높은 예금
 ㄹ. 단자회사에서 외형액을 조작한 예금⁸⁾

박경현(1985)은 '구름다리'가 일반적으로 (24 ㄱ)의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어휘화된 것이지만, (25)는 아직 어휘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24)와 같은 예는 학습자의 연령과 학교급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것은 교재 개발자나 교사들에게 주어진 임무이다. 그러나 (25)와 같은 예는 교재 개발자나 교사들 이외에도 학습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합성 명사를 찾고 그 의미를 예측하는 과정을 통해 합성 명사를 생산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어휘화 정도에 따라 합성 명사를 지도하는 마지막 단계는 새로운 합성 명사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이것은 위의 ①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는 동일한 지시 대상을 놓고 문장이나 구로 표현하는 방법과 합성 명사로 표현하는 방법을 함께 지도하면서 합성의 과정을 보이는 것이다. 합성 명사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은 지시 대상을 설명적으로 기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 과정에서 합성의 규칙을 생산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합성 명사를 만드는 사람이 고려할 사항이 있다. 이것은 합성 명사의 해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합성 명사의 어휘화를 보장하는 조건이 된다.

8) (24) - (25)의 예는 朴景賢(1985)에서 인용하였다.

합성 명사의 생성시 화자가 고려할 조건에 대하여 P.Downing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⁹⁾

(26) ㄱ. Exploitation of informational resources

ㄴ. Guaranteeing interpretability

ㄷ. Denoting a relevant category

명사를 합성할 때, 특히 명사와 명사를 합성할 때에는 후행 명사의 하위 범주를 선행 명사가 표시하게 되면 합성 명사의 장점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동일한 지시 대상을 핵어로 표현하는 것과 합성에 의해 길게 표현하는 것의 차이만 생길 뿐이다. 따라서 합성하는 사람은 선행 명사의 위치에 올 수 있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 합성 명사의 해석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청자가 합성 명사의 내재 관계를 예측할 수 없을 경우에 지시 행위 자체가 실패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합성 명사로 명명할 때에는 어휘화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고려가 중요하다. 합성어가 선천적이거나 특유한 본질의 관계에 기반을 두면 해석의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관계의 존재는 합성 명사가 사용되는 맥락에서, 또는 지시하고자 하는 실체와 관련된 화자와 청자의 경험에서 분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성 명사가 일시적이거나 우연한 관계에 기반을 두면, 합성 명사가 지시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추론하기 어렵다. 특히 맥락 의존적인 경우에 합성 명사가 지시하는 대상은 추론하기가 더욱 어렵다.

합성 명사는 명명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관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장차 관용화될 수 있는 범주의 존재를 암시한다. 일반적으로 합성 명사를 이루는 구성 성분 사이의 지속적 관계는 명명이나 범주화를 알려주는 기초가 된다.

이와 같은 합성의 조건은 학습자에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만든 합성 명사를 상호 비교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해되도록 해야 한다. 합성 명사를 만드는 조건은 결국 선행 구성 성분의 자리에 어떤 것을 선택

9) P.Downing(1977), pp. 836-838을 참조할 것.

하는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것은 앞서 살펴 본 합성의 과정과도 관련된다. 따라서 어휘화과정에서 새로운 합성 명사의 생성은 생성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생성하는 방식의 적절성 및 생성된 합성 명사의 의미 해석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합성 명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토대를 마련케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합성 명사 지도를 위한 교재는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곧바로 교육 현장에 투입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교재를 구안하기 위한 기초일 뿐이다. 위와 같은 내용은 학교급별, 학년별 교재를 제작하는 교재 개발자나 교사들에 의하여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이것은 언어 발달 단계에 따라 배열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필요에 대한 연구 결과이다. 학습자의 필요는 학습자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교재 개발자나 교사,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합성 명사의 지도의 중요성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합성 명사의 지도는 위와 같은 것을 기초로 하여 적절한 지도 내용을 선정하고 배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합성 명사를 지도하기 위한 교재 구안에서 수업만을 전제로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교재는 수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문법 영역이든지 그 중요성과 관계없이 실제 수업을 통해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다. 모든 교재는 수업만을 위해서 구안될 경우에 적절한 지도 내용을 선정할 수 없고, 배열도 어렵다. 따라서 합성 명사의 지도를 위한 교재는 학습자 스스로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과정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것은 문법 지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논저〉

- 김광해(1982), “複合名詞의 新生과 語彙化過程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88.
 ——(1990), “어휘소간의 의미 관계에 대한 재검토,” 國語學 20.
 ——(1991), “어휘 연구의 방향,” 金完鎮先生 回甲紀念論叢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 民音社.
- 김동찬(1987), 조선어리론문법 단어조성론, 고등교육도서출판사.
- 김성렬(1989), “現代國語 硬音의 音聲實現과 意味辨別 機能,” 霽曉 李庸周 博士 回甲紀念論文集, 한샘.
- 김승렬(1990), 國語語順研究, 翰信文化社.
- 김영석·이상익(1992), 現代形態論, 學研社.
- 김정수(1989), “한말[韓語]의 사잇소리 따위의 문법 기능,” 한글 206.
- 김진형(1991), “영어와 한국어의 어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창섭(1983), “‘줄넘기’와 ‘갈림길’型 合成名詞에 대하여,” 國語學 12.
- 노대규(1982), “국어의 복합어 구성 법칙,” 人文論叢 4.
- 박정현(1985), “現代國語 名詞複合形の 意味構造,” 警大 論文集 4.
 ——(1990), “사이시옷의 表記와 發音에 대한 考察: 國語科 學習指導上의 問題點을 中心으로,” 警大 論文集 9.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1974), 단어만들기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서정수(1981), “합성어에 관한 문제,” 한글 173·174.
- 성광수(1988), “합성어 구성에 대한 검토: 국어 어휘 구조와 어형성 규칙(2),” 한글 201·202.
- 성기철(1969), “名詞의 形態論的 構造,” 국어교육 15.
- 송철의(1983), “派生語 形成과 通時性的의 問題,” 國語學 12.
 ——(1989), “國語의 派生語形成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희삼(1989), “국어 합성명사의 사잇소리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심재기(1979), “冠形化의 意味機能,” 語學研究 15-2.
- (1982), 國語語彙論, 集文堂.
- 오정란(1987), “硬音의 國語史的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왕문용(1989), “‘韻朴’과 ‘朴諺’의 사이시옷,” 霽曉 李庸周 博士 回甲紀念 論文集, 한샘.
- 윤희원(1988), “文法教育講座 模型開發을 위한 研究,”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논문집』 제 33 집.
- 이강훈(1982), “국어의 복합명사에서의 경음화 현상,” 언어 7-2.
- (1984), “(복합)명사에서의 경음화 현상(Ⅱ),” 언어 9-1.
- 이광호(1993), “중세 국어의 ‘사이시옷’ 문제와 그 해석 방안,” 안병희선생 회갑기념논총 國語史 資料와 國語學의 研究.
- 이석주(1990), 國語形態論, 한샘.
- 이용주(1970), “韓國語 語彙體系의 特徵,” 국어교육 15.
- (1972), “韓國語 名詞의 構造,” 서울대학교 教育會 研究論叢 2.
- (1988), “國語科 教科書 二題,” 국어교육 63·64.
- (1990), “言語單位에 대하여,” 국어교육 69·70.
- (1992), “言語學과 國語教育,” 鳳竹軒朴鵬培先生定年紀念論叢集.
- 이용주·朴甲洙·李奭周·李周行·朴景賢(1990), 國語意味論, 開文社.
- 이익섭(1965), “國語 複合名詞의 IC 分析,” 국어국문학 30.
- 이익섭·임홍빈(1983), 國語文法論, 學研社.
- 이재인(1991), “국어 복합명사 구성의 이해,” 金完鎭先生 回甲紀念論叢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 민음사.
- 이주행(1986), “國語의 複合語에 대한 考察,” 국어국문학 86.
- 정동환(1991), “국어 합성어의 의미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원수(1990), “국어의 단어형성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경희(1992), “국어 대명사의 담화분석적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 최규일(1989), “韓國語 語彙形成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學校박사학위논문.
- 최영환(1992), “국어교육에서 문법 지도의 위상,” 국어교육학연구 제2집.

최현배(1975), 우리말본, 정음사.

하치근(1989), 국어 파생형태론, 남명문화사.

——(1991), “남북한의 단어 형성법 비교 연구 : 북한의 ‘단독법’을 중심으로,” 갈음 김석득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국어의 이해와 인식, 한국문화사.

허 용(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국의 논저>

Selkirk E.O.(1986), 단어통어론, 김승곤 외 역, 한신문화사.

Adams, Valeris(1973), *An Introduction to Modern English Word-Formation*, Longman.

Allen, J.P.B.(1974), "Pedagogic Grammar," *Techniques in Applied Linguistics*, ed. by J.P.B.Allen & S.Pit Corder, The Edinburgh Course in Applied Linguistics Vol.3, Oxford University Press.

Allen, J.P.B., and S.Pit Corder ed.(1973), *Readings for Applied Linguistics*, The Edinburgh Course in Applied Linguistics vol.1, Oxford University Press.

Allen, J.P.B., and S.Pit Corder ed.(1975), *Papers in Applied Linguistics*, The Edinburgh Course in Applied Linguistics vol.2, Oxford University Press.

Allen, V.F.(1983), *Techniques in Teaching Vocabulary*, Oxford University Press.

Aronoff, Mark(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Linguistic Inquiry Monograph I, Cambridge, Mass, MIT Press.
Bierwisch, M. and Heidolph, K.E. eds.(1970), *Progress in Linguistics*, Mouton.

Bloomfield, L.(1933), *Language*, George Allen & Unwin.

Bolinger, D.(1975), *Aspects of Language*, Harcourt Brace Jovanovich.

- Bybee, J.L.(1985), *Morpholog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Canale, M.(1983), "From Communicative Competence to Communication and Communicative Language Pedagogy," *Language and Communicative*, ed. by Richard and Schmidt, Longman.
- Carter, Ronald and McCarthy, Michael(1989), *Vocabulary and Language Teaching*, Longman.
- Crombie, Winifred(1985 a), *Discourse and Language Learning : A Relational Approach to Syllabus Design*, Oxford University Press.
- (1985 b), *Process and Relation in Discourse and Language Learning*, Oxford University Press.
- Di-Sciullo, Anna Maria and Williams Edwin(1988), *On the Definition of Word*, The MIT Press.
- Downing, Pamela(1977), "On the Creation and Use of English Compound Nouns," *Language* 33.
- Goodman, Kenneth S., E.B. Smith, R. Meredith, and Y.M.Goodman(1987), *Language and Thinking in school : A Whole-Language Curriculum*, Richard C. Owen Publishers, Inc..
- Gruber, J.S.(1976), *Lexical Structures in Syntax and Semantics*, North-Holland.
- Halle, Morris(1973), "Prolegomena to a Theory of Word Formation," *Linguistic Inquiry* 4.
- Halliday, M.A.K., A.McIntosh, and P.Stevens(1964), *The Linguistic Sciences and Language Teaching*, Longmans.
- Hoey, Michael(1991), *Patterns of Lexis in Text*, Oxford University Press.
- Hudson, Richard(1984), *Word Grammar*, Basil Blackwell.
- Hyman L.M.(1978), "Word Demarcation," *Universals of Human Language* 2, Stanford University Press.

- Leech, Geoffrey(1974), *Semantics*, Penguin Books.
- Li, Charles N. (1971), "Semantics and the structure of compounds in Chinese," 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 dissertation.
- Li, Charles N. ed.(1975), *Word Order and Word Order Change*, University of Texas Press.
- Lieber R.(1981), *On the Organization of the Lexicon*, University of New Hampshire.
- (1983), "Argument Linking and Compounds in English," *Linguistic Inquiry* 14.
- Lyons(1977), *Semantics*, vols 1 &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chand, Hans(1969), *The Categories and Types of Present-Day English Word-Formation*, C.H.Beck'sche Verlagsbuchhndlung.
- Matthews, P.H.(1991), *Morphology*,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Arthur, Tom(1983), *A Foundation Course for Language Teach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Carthy, Michel(1992), *Vocabulary*, Oxford University Press.
- Morgan, John & Rinvoluceri, Mario(1990), *Vocabulary*, Oxford University Press.
- Mundy, John(1978), *Communicative Syllabus Design*, Cambridge Univesity Press.
- Nida, E.A.(1949), *Morphology*,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1975), *Componential Analysis of Meaning*, Mouton Publishers.
- Roeper, Thomas and Siegel, M.E.A.(1978), "A Lexical Transformation for Verbal Compounds," *Linguistic Inquiry* 9.
- Stockwell, R.P.(1977), *Foundations of Syntactic Theory*, Prentice-Hall International Editions.
- Widdowson, H.G.(1979), *Teaching Language as Communi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